1. 천지왕본풀이

천지왕(天地王)은 옥황(玉皇)이고, 지부왕(地府王)은 총명부인(總明婦人). 서수아미옌 허주게. 겐디. 옥황(玉皇)에서 천지왕(天地王)이, 총명부인(總明婦人)안티, 지하에 지부왕(地府王)신디 ᄂᆞ린거라. 경 허연 ᄂᆞ리난. 총명부인(總明婦人)은 천지왕(天地王)이 내리난에 밥을 ᄒᆞᆫ상 출령 내놔사 헐 거 아니라. 게난 밥을 ᄒᆞᆫ상 출령 내놓젠 허난. 쏠이 엇인 거라. 밥 헐 쏠이 엇이난. 그 ᄀᆞ을에 수멩이 덥덜[1] 살앗인디. 수멩이가 잇인디. 수멩이네가 경 잘 살안. 곡석(穀食)을 허면, 동네에, 장네(長利)[2]에 붙여주고. 엇인 사람들 꿔단 먹엇단, 새 곡석(穀食)허민 물고 허는디. 묵은 곡석(穀食) 장네(長利) 줜, 받을 땐 새 곡석(穀食)으로 받고. 또, 뒈로 줜, 말로 받아먹고. 말로 주어뒁, 섬으로 받아먹고. 게난 말하자면 완전 욕심젱이 주게. 이제 대미쏠(大白米)에는 대몰레(大沙)[3]를 섞엉 ᄂᆞᆷ을 주고, 소미쏠(少白米)에는 소몰레(少沙)를 섞엉 ᄂᆞᆷ을 주고. 게난 이젠 총명부인(總明婦人)은 밥 ᄒᆞᆫ상을 출리젠 허난 헐 수 엇이 수멩이네 집이 간. 쏠 ᄒᆞᆫ 뒈를, 간 장네(長利)에 빚져단. 이제 그걸 ᄒᆞᆫ 작박[4] 거려놘, 씻언. 밥 ᄒᆞᆫ 상을 출련 천지왕안티 상을 들렁 가난. 천지왕은 첫 숟가락을 뜬게 머흘[5]이 씹힌 거라. 게난 총명부인(總明婦人)안티

"어떵허난, 쳇 숟가락이 머을이 씹혐덴."

게난

"아이, 그런게 아니고. 이 고을에 수멩이가 잇인디. 수멩이네 집인 묵은 곡석(穀食) ᄂᆞᆷ 줘뒁, 자기가 받을 땐 새 곡석(穀食)으로 받고. 이제 뒈로 줘뒁 말로 받고, 대미쏠(大白米)에는 대몰레를 섞고, 소미쏠(少白米)에는 소몰레를 섞엉 경 ᄂᆞᆷ을 줬젠."

허난. 상을 물린 거라. 상을 물련 허는 말이. 대별왕이 총명부인(總明婦人)ᄀᆞ라, 상 물리면서

"이걸랑 시걸명 잡식[6]허영, 나 뒤에 삼천명에 금상, 오천명에 중셍들이 오랐이메. 시걸명 잡식헤당 줘불고, 그추룩 나쁜 ᄆᆞ음 먹은 수멩이네랑 이제 이 ᄀᆞ을에 놔둘 필요가 없다. 수멩이네랑 사름 죽어난 디, 귀양풀이[7]

---

1) 덥덜: 혈족. 친족.
2) 장네(長利): 가난한 농가에서 식량이 모자라는 고비에 곡식을 꾸엇다가 갚을 때에 따르는 변리.
3) 대몰레: 모래.
4) ᄒᆞᆫ 작박: 한 바가지.
5) 머흘: 밥에 섞인 자잘한 돌멩이.
6) 시걸명 잡식: 제사가 끝난 뒤에 제상에 차린 제물을 조금씩 뜯어 문밖으로 던져 잡귀를 대접하는 일.

헐 때랑 오곡밥허영. 경 허연. 그걸로 주렌.”

그 법지법(法之法) 마련헤 둰. 그날 밤인, 밤이 어둑언. 초경, 이경, 야사삼경 넘언. 깊은 밤 넘엉 뒷날 아칙[8] 뚝 울어가난. 천지왕(天地王)은 옥황엘 올라사얄 거주게. 게난 올라가젠 허난 총명부인(總明婦人)이 허는 말이,

“대별왕님아, 간 밤이 뒌 아기는 나면 뭐옌 이름을 지웁네까?”

경 허난. 대별왕 허는 소리가

“만약, 혼 텟줄에 두 개를 낳뒈. 아들랑 낳건 문저[9] 난 걸랑[10] 대별왕, 말쩨[11] 난 걸랑 소별왕. 경 헨 이름 지와주고. 만약 뚤을 낳걸랑. 문저 난 걸랑 대털왕, 말쩨 난건 소털왕으로 허연 이름을 지와도렌.”

“게믄 본메본짱이나 주어뒁 갑서.”

게난 본메본짱 내어준 건 콕씨[12] 시 방울을 내준 거라. 이 콕씨를 정월 첫 헤일(初亥日) 날. 게난, 도세기[13] 날이주게. 게난 첫 뚯날, 이거 싱겅, 이거 순이 낭 자라걸랑. 혼 줄랑 지붕 우터레 발을 벋게 허고, 두줄랑 옥황더레 올리렌. 경 헨 가분디. 아닌게 아니라, 이젠 애긴 나난 아들 성제 난 거 아니. 게난 문저 난 건 대별왕으로 이름을 지으고, 말쩨 난 건 소별왕으로 헤연 이름을 지완. 이 아기들이 커 가난 아방국도 츠지허키여[14], 어멍국도 츠지허키여 형제가 허여가난. 이젠 족은 아시[15]가 더 으망진[16] 모양이라. 게난 소별왕 허는 말이

“게믄, 성님아, 우리가 예숙이나 제껑 이기는 자랑 아방국을 츠지허고, 지는 자랑 어멍국을 츠질협주.”

허난.

“게건 아멩이나 허렌.”

소별왕이,

“성님아, 어떤 일로 동지 석 덜 설한풍(雪寒風)이 불엉 벡눈(白雪)이 펄펄 오고. 헤가면, 어떤 낭[17]은 잎이 푸렁 스시스철[18] 시양삭삭 이제 싱싱

---

7) 귀양풀이: 사령(死靈)을 위무(慰撫)하여 저승에 보내는 굿.
8) 아칙: 아침.
9) 문저: 먼저.
10) 난 걸랑: 낳은 것은.
11) 말쩨: 나중에.
12) 콕씨: 박씨
13) 도세기: 돼지.
14) 츠지허키여: 차지하겠다.
15) 족은 아시: 작은 아우.
16) 으망진: 똑똑하고 야무진.
17) 낭: 나무

허고, 어떤 낭은 잎이 다 떨어집네까?”

경 헨 질문을 허난. 대별왕 허는 말은,

“서룬 나 동싱아, 모른 소리 허지 말라. 속이 옴은[19] 낭은 잎이 아니 떨어지고, 속이 구린[20] 낭은 잎이 떨어진덴.”

경 허난,

“성님아, 모른 소리 허지 맙서. 어떵허난 머구낭[21]은 속이 옴아도 잎이 떨어집네까? 경 허고, 어떵 허난 왕대 죽대는 속이 구려도 잎이 아니 떨어집네까?”

경 허난

“나 동싱아, 왕대 죽댄, 속이 ᄆᆞ디ᄆᆞ디가 속이 탱탱 옴으난 겨울에도 잎이 아니 진다.”

이젠

“알앗수덴.”

허연.

“게믄 성님아, 어떵허난 동산에 풀은 이제 메[22]가 졸르고[23], 굴헝[24]에 풀은 메가 집네까[25]?”

허난

“동산에 풀은 비가 오라도 물이 잘 엇이난, 메가 쫄르고, 굴헝에 건 아멩헤도 물이 고이니까 경 허난, 메가 진다. 경 허고 아무레도 헷빗도 맞고 뭐 허난”

“성님아, 모르는 소리 허지 맙서. 우리 인간 사름은, 어떵 허난 머리는 쉰대잔[26] 머리, 수페머리[27]가 뒈고, 발등에 털은 쫄릅네까?”

허난 그것에도 진 거라. 예숙도 제끼단[28] 젼. 게난 아시 허는 말이,

“성님아, 경 말앙. 우리가 꼿춘심[29]이나 허영 꼿이나 키워 봉, 번성허는 자랑 어멍국이고, 아방국이, 이녁이[30] ᄎᆞ지허구정[31] 허는 국을 ᄎᆞ지허

---

18) ᄉᆞ시ᄉᆞ철: 사시사철.
19) 옴은: 여문.
20) 구린: 고린.
21) 머구낭: 머귀나무.
22) 메: 초목의 묘종.
23) 졸르고: 짧고.
24) 굴헝: 움푹 패거나 깊이 빠진 구렁.
25) 집네까: 깁니까.
26) 쉰대잔:쉰대지, 길다의 뜻—
27) 수페머리: 숲처럼 무성한
28) 예숙도 제끼단: 수수께끼 놀이를 하다가.
29) 꼿춘심: 꽃가꾸기 내기
30) 이녁이: 자기가.

고, 번성을 못허는 자랑 어멍국을 ᄎᆞ지헙주게.”

허연.

“게믄 경 허렌.”

허연. 이젠 서천꼿밧[32]데레 간. 꽃씨를 간 은상귀(銀床龜)에 꼿씨를 하나씩 심언. 수둠 주고[33] 물 주언. 뎅기단 보난 대별왕 싱근[34] 꼿은 막 시양 삭삭 고와지고, 소별왕 싱근 꼿은 검뉴울[35]이 뒌 거라. 거난 소별왕이 꿰를 쓴 거라.

“성님아, 우리 ᄌᆞᆷ이나 ᄒᆞᆫ ᄌᆞᆷ 잡주.”

허난 성은 아무레도 숫져신ᄀᆞ라[36].

“경 허라.”

허연. 이젠 누원[37] ᄌᆞᆷ을 자는디, ᄌᆞᆷ 자는 동안에 꼿을 바꽈[38] 놔분 거라. 소별왕이 꼿 바꽈 놔둰[39],

“성님아, 일어 납서.”

허난. 일어난 보난 꼿은 바꽈진 거 아니. 대별왕 허는 말이

“설운 나 동싱아, 어떵허연 꼿사발은 선후도착(先後倒錯)이 뒈언.”

이제 바꾸와졋덴 허는 말이주.

“선후도착이 뒈엇져만은 기여 늘랑 어멍국을 ᄎᆞ질허라. 날랑 아방국을 ᄎᆞ질허마.”

게난 이제 그 ᄏᆞ씨 싱경[40]. ᄒᆞᆫ 줄은 지붕 우터레[41] 올리고, 양 줄은 옥황더레 올리난, 대별왕은 그걸 탄 올라사젠 허난. 올라가단 보난 말 모르는 가막세덜[42], 새. 그 길짐승들이 오조조조 말을 ᄀᆞᆫ는 거라. 사람ᄀᆞ찌 말을 ᄀᆞᆯ으난. 아이고, 영 허민 안뒈켄 ᄀᆞᆸ[43]을 갈라야뒈켄. 겐 소피(松皮) ᄀᆞ루[44]터 닷 말 닷 뒈 칠세오리 허여단 동서러레 싹 허트난, 말 ᄆᆞ른 가막세들도 세(舌)가 ᄌᆞᆯ란, 겐 말을 못 ᄀᆞᆫ게[45] 멘들고. 아이, 보난, 귀신 갈 디

---

31) ᄎᆞ지허구정: 차지하고 싶은.
32) 서천꼿밧: 환생(還生)꽃 멸망(滅亡)꽃 등 주화(呪花)를 가꾸는 꽃밭.
33) 수둠 주고: 흙을 모아 올리다.
34) 싱근: 심은.
35) 검뉴울: 시들어가는.
36) 숫져신ᄀᆞ라: 소박하고 꾀가 없는 모양이라.
37) 누원: 누워서.
38) 바꽈: 바꿔.
39) 바꽈 놔둰: 바꿔 놔 두고.
40) 싱경: 심어서.
41) 우트레: 위쪽으로.
42) 가막세덜: 까마귀들.
43) ᄀᆞᆸ: 경계.
44) ᄀᆞ루: 가루.

셍인이여. 셍인 갈 디 귀신이여 막 서로가 허꺼진 거라. 겐 아이고, 이것도 안뒈켄. 겐 이젠 이걸 곱을 갈라사주겐 허연. 남정중(南正重) 화정녀(火正黎)[46]엔 헌 신이 잇어예. 허난 저승법을 마련 헌 남정중(南正重), 이승법을 마련 헌 화정녀 허난. 남정중, 화정녀(火正黎)를 불러단. 귀신 갈 딘 귀신 가게허고, 셍인 갈 딘 셍인 가게허난. 게난 귀신은 저승더레 보내게허고, 우리 셍인들은 이승더레 보내게 허연. 이제 곱을 갈란.

겐, 올라사젠 허난. 아이, 하늘 우터레 ᄇᆞ리난 낮이도 해가 두개가 떠오고, 게난 해가 두개 뜨난. 인간 백성들이 줒안[47]. 줒아 살 수가 엇고, 이제 가진 낭에 강 목을 메영 죽고, 막 헤가고[48]. 밤인 뒈여가난, ᄃᆞᆯ(月) 두개가 떠오난, 백성들이 천 멧벡 명이 고사(凅死), 얼어, 실령. 경 헨에 젭시물[49]에 강 빠져 죽고 막 경 헤가난. 아이, 이것도 아니 뒈켄. 이젠 궁정방에 ᄂᆞᆯ려들어 대별왕은 천근들어 벡근쌀(百斤矢), 원이둥둥 금올려단. 앞이 오는 일광(日光) 생겨두고, 뒤에 오는 일광(日光)을 화살로 쏘안. 겐, 맞쳐단, 동이와당[50]더레 받지 헤두고[51], 소별왕은 이젠 또, 원이둥둥 금올려단 활로 쏘안에. 앞이 오는 월광(月光)을 생겨두고, 뒤에 오는 월광(月光)을 맞쳐단 가운데 받지허니까. ᄒᆞᆫ 하늘에 해도 하나, ᄒᆞᆫ 하늘에 ᄃᆞᆯ(月)도 하나.

게난 일일광도 도업(都業), 월일광도 도업(都業). 아방국으로 간, 경 헤뒨. 아방국으로, 대별왕은 이제 아방국으로 도올리난. 어떤 사람들은 아방국더레 갈 때 용상(龍床)을 탕 갓덴 헤예. 용상(龍床)을 탕 가는디 용상(龍床)우에 탁 앉이난 용상(龍床)이 드르릉 허난에, 이 용상(龍床)아, 저 용상(龍床)아. 임제 ᄆᆞ른[52] 용상(龍床)아, 경 허연 웬 주먹으로 웬 뿔을 탁 치난. 게난 용상은 웬 뿔이 엇젠 헤예. 경 용상(龍床)도 탕 갓젠허고, 경 허난. 이제 저승법을 마련헌 대별왕도 도업, 소별왕도 도업. 이것이 천지왕(天地王) 본(本)입네다.

---

45) 곧게: 말하게.
46) 남정중(南正重) 화정녀(火正黎) 『사략(史略)』 전욱(顓頊) 고양씨(高陽氏) 항목에서 따온 것. 여기서는 남정중의 예법(禮法). 또는 다툼의 분한(分限)을 구별하는 법.
47) 줒안: 뜨거움이나 더위, 추위 등에 못 견디는 상태를 말함.
48) 헤가고: 하고 있고.
49) 젭시 물: 접시 물
50) 동이와당: 동해바다.
51) 받지 헤두고: 바쳐두고.
52) 임제 ᄆᆞ른: 임자 모르는.